

영화·가요 이어 책·음료까지... 아날로그 감성자극

회사원 김모(27·광주시 처평동)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0년대 유행했던 오렌지 주스 '파봉'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한다. 곧 김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전 달에 구입한 자가용에 몸을 싣는다. 차종은 '프라이드'. 90년대 초 한 때를 풍미했던 차다. 차안에는 귀에 익은 가요 '내 눈물 모야'가 색다른 음색으로 흘러나온다. 김씨는 점심 식사 후 20년 전 인기를 끌었던 '겨울나그네'를 읽으며 독서삼매경에 빠진다. 저녁이 되자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그가 간 곳은 영화관. '김풍'을 재구성해 만든 영화를 보고 싶다는 여자친구의 안달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TV를 켜니 60·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사랑과 야망'이 방송 중이다.

20~30년전 유행 다시 인기

이쯤되면 현대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리메이크(Remake)된 것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나 가요는 물론이고 자가용이나 심지어 음료

리메이크 열풍

수까지 리메이크의 파고를 피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지금 리메이크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당장 노래방 벽에 붙어 있는 신곡 리스트를 살펴보면 리메이크 열풍을 실감할 수 있다. 정수라의 노래 '환희'는 싸이의 '환희'로, '해바라기'가 'SG워너비'로 새롭게 태어났다. 리메이크 된 노래들은 구세대들에게는 옛 기억을 되살리는 추억의 매개체로, 신세대들에게는 신선한 '신곡'으로 다가간다.

방송프로그램 역시 리메이크 현상에 뒤처지지 않는다. 19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TV는 사랑을 싣고'는 '친구찾기'라는 대명제 속에 바뀐 생활 속에 잊고 살

았던 친구와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재탄생 된 지 오래다.

리메이크의 손길이 뻗친 분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요즘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고객의 욕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귀금속 리메이크 서비스(리폼·Reform)'도 인기다. 귀금속 가게 주인 안백현(30·광주시 풍암동)씨는 "일주일 에 4~5건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

웃대 예외가 아니다. 광주 현대백화점의 남성의류점에는 Y셔츠 칼라 교체 문의가 빈번하다. 'K'브랜드의 매장 직원 김미숙(여·29·광주시 오치동)씨는 "한 달이면 수천 주문이 50여건이나 된다"며 "고객 서

비스 차원에 인기 무상으로 해주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라고 밝혔다.

귀금속·옷·디자인도 바뀌

책도 리메이크 시대다. 단순한 재출간이 아니라 절판됐던 책들이 제복이나 표지, 내용을 바꿔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창준씨의 소설 '눈길'은 이미지를 살린 삽화를 넣어 단행본으로 재탄생했다. 또 토정 이지함의 삶을 그린 이재운씨의 소설 '토정비결'도 14년만에 다시 선을 보았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리메이크의 정당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 있을까? 하지만 리메이크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 김시경(여·36) 교수는 "리메이크 열풍은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을 줄여줄게 할 것"이라며 "작품의 다양성이 희박해지고 창작성이 결여되는 폐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시 설

학대받고 헐벗은 어린이를 생각하자

어제 84회 어린이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풍성한 잔치와 이벤트가 펼쳐졌다. 놀이 공원이나 도심에도 가족 단위 인파가 넘쳐 났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최고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아직 남아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전체 가구 중 7.8%인 114만여 가구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편모나 편부 가정이다. 성폭행과 같은 아동학대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관계친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 집은 우리사회가 나누어 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인 가정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과보호와 과육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생활외에도 학원·과외에 시달리거나 게임에 몰두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중학교 예비반에 보내야 안심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어른들 시각으로 자녀를 욕하면서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그릇된 가치관이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전승되고 있다.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을 즐길 여유도 없이 경쟁사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날이 선물이나 사주고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반복 이벤트로 그쳐서는 성폭행과 같은 아동학대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관계친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 집은 우리사회가 나누어 질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 몫이다.

5·31 지방선거 현장

어린이날 교육·정책 공약 잇따라

박광태 후보 '어린이 사랑 정책'

박응두 후보 교육여건 개선 조례

이영남 후보 학교급식지원 확대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어린이 사랑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민선 4기 어린이 사랑운동을 펼쳐 미래의 꿈나무들이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운동과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박응두 민주당노동당 전남지사 후보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곡성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 어린이들과 놀이를 함께 한 뒤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가 이날 제시한 공약은 ▲농촌부터 무상급식 실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남교육지원조례 제정 ▲1읍·면 1국·공립 영유아원 설치 등이다. 박 후보는 이어 같은 당 소속 전남도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미군기지 이전 부지인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열린 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이영남 화순군수 예비후보(무소속)는 5일 화순 동면초등학교 등 관내 7개 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석, 신생아 양육지원금 및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녀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 신생아 양육지원금 30만원을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신생아에 대해 10년간 건강을 군에서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새롭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호남권 광역단체장 공동회견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7일 오전 11시30분 전북도의회에서 같은 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정국환 전북지사 후보와 함께 '호남권 발전전략'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세 후보는 이날 공동 선언을 통해 국책사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지역간 중부부자를 피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상호 발전을 꾀하는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갑 대표와 장상 선대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형석 후보 '정책제안-e프로젝트'

○이형석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장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제안-e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정부의 유비쿼터스 실현 ▲광주 3대 육상산업 배후 거점도시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북구 발전 3대 성장엔진 추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을 통해 행복한 북구, 살맛나는 부자 북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식 후보 노인복지시책 발표

○김종식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5일 소외계층 및 노인복지 시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최근 우리 사회가 초고속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며 "경로당 확충과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인상 등 이르신 복지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건 전 총리 광주 방문 전남대 특강



4일 전남대에서 '희망 한국을 위한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고건 전 국무총리가 강연을 마친 뒤 학생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 중요 시대적 역할 구상 조만간 발표"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고건 전 총리가 4일 전남대 강연에서 광주·전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탓인지 후보들의 '고건 후광 효과'가 경쟁도 치열했다.

고건 전 총리는 이날 '희망한국을 위한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전남도지사 경력을 앞세워 광주·전남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고건 전 총리는 "전남도지사로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힘썼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광주·전남은 나를 성장시켜준 어머니의 품과 같다"며 광주·전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고건 전 총리는 2년 전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을 예로 들어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시대에 요구하는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일로써 승부하는 성과주의 리더십 ▲청렴과 신뢰의 리더

십 등을 들며 이른바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건 전 총리는 "국정에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시대적 역할에 대해 구상을 갖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밝히겠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고건 전 총리는 국립5·18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광주 방문에서는 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의 '모시기 경쟁'이 치열했다. 고건 전 총리가 도착한 송정리역에는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무소속 송병태 광산구청장 후보 등이 마중을 나왔으며 박광태 광주시장 예비후보 역시 고건 전 총리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광일색 이라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대부분 관광성 외연수라는 사실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 발간한 백서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4년동안 250개 광역·기초의회의원들이 다녀온 1천520회에 달하는 해외연수의 80% 이상이 관광으로 밝혀진 것이다. 해외연수에 사용된 203억원의 국고가 지방의원들의 해외관광여비로 날라간 셈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연수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따가운 질책에도 놀러 다니는 해외연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전남 지역 광역과 기초의원 445명이 지난 2년간 해외에서 보낸 총 연수시간 중 공무에 해당하는 시간은 전체 여행의 15.7%에 불과했다. 임기료를 앞둔 울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연수를 빙자한

관광을 다녀온 경우도 많았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0년 말 각급의회 규칙으로 해외여행 적용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 심사위원회가 설치됐으나 형식적 심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타당성 없는 외연은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이같은 관광성 외연은 지방자치 도입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이번 5·31 선거를 통해 구성될 차기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으로 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유급제로 전환된다. 관광성 외연은 국고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불성실한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진정한 지역 일꾼인지 유권자들이 가려내야 한다.

민주, 북구청장 후보 송광운씨 재공천

반명환씨 탈당등 강력 반발

경기지사 후보 박정일씨

송광운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로 재공천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서울 남부지원의 '후보 공천 금지 가져본 신청'을 제기했던 반명환 전 광주시의회의장은 "법원에서 후보 공천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중앙당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전락공천을 통해 기존 후보를 재공천했다"며 "중앙당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탈당 후 무소속 연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지사 후보로 박정일 중앙당 유비쿼터스 위원장을 공천했으며 부산, 인천, 강원지역 단체장은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남부지원의 결정은 후보 공천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므로 당헌 당규에 따라 전략공천을 통해 송 후보를 재공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구청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후보 공천 금지 가져본 신청'을 제기했던 반명환 전 광주시의회의장은 "법원에서 후보 공천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중앙당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전락공천을 통해 기존 후보를 재공천했다"며 "중앙당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탈당 후 무소속 연대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지사 후보로 박정일 중앙당 유비쿼터스 위원장을 공천했으며 부산, 인천, 강원지역 단체장은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비서관 인사

- 민정비서관 남영주씨
- 인사관리비서관 문해남씨
- 혁신관리비서관 강태영씨
- 업무혁신비서관 김충환씨

청와대는 4일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에 남영주(49)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인사

관리비서관에 문해남(47) 인사제도비서관, 혁신관리비서관에 강태영(47) 업무혁신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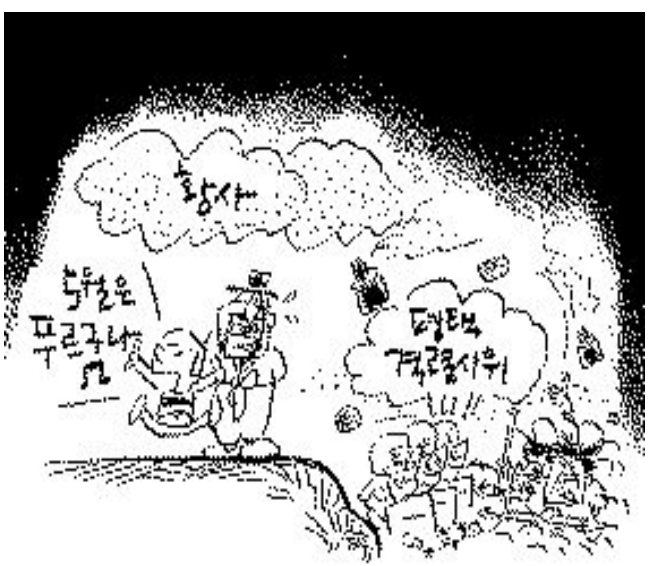
또 업무혁신비서관에는 김충환(45) 업무혁신비서관실 행정관, 인사제도비서관에 구윤철(41) 인사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을 각각 승진시켜 기용했다.

균형인사비서관에 조현옥(50) 여성정책 세력민주연대 대표를 발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이젠 노랗말도 바뀌야...

2008년 독도 광물자원 탐사

해수부 '독도이용 기본계획'

풍력발전소 설치·독도관리선 건조

올해부터 5년간 독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독도 관리선이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조용한 외교 재검토' 선언을 한 이후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용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첫 후속 조치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정부 7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34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 주변해역 수산자원 이용 ▲독도 내 시설 관리·운영 ▲독도 관련 지식정보 생산·보급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독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부존량과 어장환경 변동을 조사하고 인공어초도 조성하기로 했다.

2007년에는 복권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물자 수송과 연구업무 지원을 맡을 독도 관리선을 만들고 이듬해부터 독도 주변해역 광물자원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또 독도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도에 설치된 어민 숙소를 정비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鎭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인대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FAX 222-4918	(F A X 222-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